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과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 의사소통과의 관계

신희건¹ · 유일영² · 오의금²

¹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박사과정생, ²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간호정책연구소 연구원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Parenting Attitude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Patterns of School Age Children

Shin, Hee Geon¹ · Yoo, Il Young² · Oh, Eui Geum²

¹Doctoral Candidate,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²Professor, College of Nursing · Researcher, Nursing Policy Research Institut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cribe quality of life in school age childre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parenting attitude as perceived by children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pattern. **Methods:** Data were collected between May 26 and June 3, 2009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148 pairs of children and their parents. The children were enrolled in 4th to 6th grades. The questionnaires included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Parent-Child Communication (PCC) Scale, and Pediatric Quality of Life Inventory (PedsQL).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WIN 17.0 program. **Results:** The Quality of Life (QOL) score for the children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children reporting higher parental bonding attitude (mother $r=.38$, father $r=.34$)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mother $r=.43$, father $r=.36$).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factor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QOL were academic achievement, caregiver available after school, parent-child communication, school satisfaction, relationship with peers, and birth order among siblings. **Conclusion:** Positive relationships and good communication with parents and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were important factors associated with quality of life in school age children.

Key words: Child, Quality of life, Child rearing, Communication

서론

연구의 필요성

학령기 아동은 만 6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포함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아동이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의 아동은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자신의 인지와 판단으로 주위 사물과 환경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이해를 시작한다. 특히 학령기 후기는 청소년 전기로서, 자

아성장에 중요한 시기로 자아개념, 사회관, 가치관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생각과 자신이 설정한 이상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된다(Han, Choi, & Park, 2004; Kang, Kim, Song, Sim, & Kim, 2007).

삶의 질은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및 영적 영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을 의미하며, 현재 상황에 관한 개인의 느낌으로 행복이나 삶의 가치 개념, 혹은 생활에 대한 만족으로 이해되고 있다(Padilla &

주요어 : 아동의 삶의 질, 양육태도, 의사소통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oo, Il Young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250 Seongsan-ro, Seodaemun-gu, Seoul 120-752, Korea
Tel: 82-2-2228-3273 Fax: 82-2-392-5440 E-mail: iyoo@yuhs.ac

투고일: 2010년 5월 10일 1차수정: 2010년 6월 21일 게재확정일: 2010년 7월 8일

Grant, 1985). 주관적인 개념인 삶의 질은 개개인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운데, 특히 성장발달 과정이 다른 아동에서는 성인과는 다르게 발달수준에 맞는 접근과 이해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아동의 삶의 질 관련 연구들을 보면 90년대 초부터 국외에서는 장기간 생존하는 암 환아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들이 있고(Raven-Sieberer & Bullinger, 1998), 국내에서는 부모, 가족생활 등의 생태환경, 학대 등 아동권리의 요소와 삶의 태도를 분석한 연구(Lee, Kim, Rhu, Moon, & Hong, 2000), 그리고 중증장애 아동과 삶의 질에 대한 연구(Lee & Im, 1998), 만성질환아의 삶의 질에 대한 부모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Kim & Shin, 2004; Shin, Sim, & Kim, 2006) 등이 있으나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자료를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수집하였다. 일반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삶의 질에 대한 간호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 영역과 속성에 관한 연구(Han, Yi, Sim, & Choi, 2005)와 아동의 삶의 질 개념분석 연구(Chang & Oh, 2008)로 제한적이다. 또한 아동의 삶의 질과 관련된 다각적인 변인을 살피는 연구 역시 미비하며 제한적이다(Bullinger, Schmidt, & Petersen, 2002). 특히 아동의 삶의 질을 부모의 양육태도나 의사소통과 연관시켜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성격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Lee, 2007; Woo, 2003). 부모와 자녀가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교한 연구(Kwon, 2009)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가 인지한 양육태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부모보다는 자녀가 인지한 양육태도가 자녀의 내적발달을 설명하는데 더 관련성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녀가 느끼고 받아들이는 양육태도는 부모가 보고한 것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자녀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부모와의 관계를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질이 양육태도나 의사소통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효율적인 부모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아동의 삶의 질이나 부모의 양육태도, 의사소통과 관련된 자료를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분석한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 수준 및 부모와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간호중재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부모와 아동이 인지하는 학령기 후기 아동

의 삶의 질을 비교하고,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 양상과 아동의 삶의 질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및 부모가 인지한 아동의 삶의 질 수준 및 차이를 비교한다.

둘째,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양상을 파악한다.

셋째,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삶의 질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을 파악하고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와의 의사소통, 아동의 삶의 질 간의 관계 및 아동의 삶의 질 관련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로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소재하는 4개의 초등학교 4, 5, 6학년 재학 중인 아동과 그들의 부모들로 편의 표집에 의해 추출하였다. 학령기 아동 중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발달기적 특성상 청소년 전기로 인지발달로 인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져 자신과 환경에 대한 평가가 명료해지고 전반적인 자아지각을 하여 자기의 정서와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연령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대상자의 수는 Cohen (1988)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한 G*Power 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5, 검정력 .80, 회귀분석의 중간 효과크기 .15으로 선정했을 때 최소인원은 139명으로 산출되었으며, 본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는 아동과 그 부모로 이루어진 148쌍이었다.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로, 아동용과 부모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아동용은 아동의 삶의 질 23문항,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25문항과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양상을 측정하는 20문항으로 45문항인데,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 따로 답하도록 되어 있어서 총 90문항이 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0문항을 합하여 총 123문항이다. 부모용은 부모

님이 인지한 아동의 삶의 질 23문항과 부모님의 일반적 특성 9개 문항으로 총 32문항으로 구성된 자가보고식 설문지이다.

아동의 삶의 질

아동의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로 Varni, Seid와 Kurtin (2001)에 의해 개발되고, Choi (2004)에 의해 검증된 PedsQL 4.0 Generic Core Scale의 아동의 자가 보고지와 부모의 대리 보고지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아동의 인지기능에 맞도록 개발된 도구로, 부모가 인지하는 아동의 삶의 질을 아동의 응답과 함께 동시에 측정할 수 있어 부모와 아동 간의 의사소통관계를 살필 수 있는 장점이 있다(Choi, 2004). 삶의 질 도구의 하부영역은 신체적(8문항), 정서적(5문항), 사회적(5문항), 그리고 학업(5문항) 영역의 총 23문항 5점 척도로 '전혀 문제가 없다' (0)에서 '거의 항상 문제가 있다' (4)로서 점수화(Scoring)는 0=100점, 1=75점, 2=50점, 3=25점, 4=0점으로 전환하여 점수를 산출(PedsQL data, 1998-2010; Varni, Seid, & Kurtin, 2001)하고, 총점은 0점에서 2,3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Choi (200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아동의 자가보고지 및 부모의 대리보고지 각각의 신뢰도 Cronbach's $\alpha=.90$ 이었다.

자녀가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태도는 Parental Bonding Instrument (PBI) Parker, Tupling, & Brown, 1979)로, 이 도구는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에 대한 자기보고 측정도구로서, Song (1992)에 의해 번안된 한국판 PBI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태도에 대해 각각 측정하는 25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부영역으로 돌봄 12문항, 과보호 13문항으로 총 점수 범위는 25점에서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양육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돌봄은 돌봄의 부족(무관심) 또는 거부적인 부모의 태도 및 따뜻함을 측정하게 되고, 과보호는 사생활 침입, 과잉통제, 그리고 죄책감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행동과 독립성을 키워주는 자율적인 부모의 태도와 행동을 측정한다. Song (1992)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89$ 였고,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82$ 였다.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은 Barnes와 Olson (1985)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도구를 Kim (1989)이 번안한 것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있어 개방성 정도와 문제성 정도를 측정하는 2개 하위척도로 나뉘어져

개방형 10문항과 폐쇄형 10문항,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4점 척도로서 각각 1-4점의 범위로 나타나며, 역기능적 의사소통 문항은 역산하여 20-80점 범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개방적이고 긍정적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역기능적이고 폐쇄적임을 의미한다. Kim (198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93$ 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였다. 자료 수집하기 이전에 아동과 부모 각각 3명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모호한 질문에 대한 평가와 질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된 시간은 5-15분이고, 설문 항목의 이해는 어렵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 수집 방법은 서울·경기지역에 위치한 본 연구에 관심을 보인 보건교사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의 학교장과 담임교사에게 먼저 연구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여, 연구 참여에 동의한 4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서울지역 초등학교는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였고 경기지역 초등학교에는 우편으로 담임교사에게 연구에 대한 안내서, 동의서 및 설문지를 전달하였다. 연구에 대한 안내서에는 연구의 목적과 의의, 익명성과 응답자료 및 내용의 비밀보장 및 연구결과에 윤리적 사용에 대해 기술되어 있으며, 아동용은 담임교사가 연구에 대해 설명한 후 설문에 동의한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작성 후 바로 수거하도록 하였다. 부모용은 아동에 의해 연구목적과 연구동의 등이 포함된 설문지를 부모님께 전달하고 동의한 경우 집에서 작성한 후 아동이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2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90부(95.0%)가 회수되었고, 응답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무응답을 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아동과 부모 각 148부(74.0%)를 본 연구의 자료로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전산통계 처리는 SPSS WIN 17.0 Program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연구 변수의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부모가 인지한 아동의 삶의 질과 아동의 삶의 질의 비교,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상에 대한 분석은 Paired t-test, ANOVA (사후검증 Scheffe test)를 이용하였다.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아동의 삶의 질 간의 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과 관련된 변인의 확인을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거주지역은 경기도 66.9% (99명), 서울 33.1% (49명)였고, 아동의 성별은 여자 55.4% (82명), 남자 44.6% (66명)였다. 학년은 4학년 45.9% (68명), 5학년 18.9% (28명), 6학년 34.5% (51명)으로 구성되었고, 학교성적은 66.9% (99명)가 '중간이다'로 응답했다. 부모님 중 어머니의 응답이 90.5% (134명)였으며,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이상이 97.3% (144명)였다.

아동이 보고한 가정의 경제상태는 '보통이다' 55.4% (82명), '잘 산다' 29.1% (43명)로 대부분 보통 이상이었고, 방과 후 집에 어른이 계신다고 한 경우가 64.9% (96명)였다. 또래집단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다' 49.3% (78명), '아주 좋은 편이다' 45.3% (67명)로, 친한 친구 수는 '5명 이상'이 82.4% (122명)로 많았으며, 학교생활은 '즐겁다' 50.0% (74명)와 '매우 즐겁다' 39.9% (59명)로 대부분의 아동이 학교생활이 즐겁다고 하였다. 아동의 형제 수는 '2명'이 63.5% (94명)로, 첫째인 경우가 46.6% (69명)였다. 이에 비해, 부모님이 보고한 경제상태는 대부분 '보통이다' 85.8% (127명)였다. 아동의 또래집단과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Children & Parents

(N=148)

Children			Parents			
Variables	Category	n (%)	Variables	Category	n (%)	
Living Area	Gyeonggi-do	99 (66.9)	Gender	Father	14 (9.5)	
	Seoul	49 (33.1)		Mother	134 (90.5)	
Gender	Male	66 (44.6)	Education	Middle school	3 (2.0)	
	Female	82 (55.4)		High school	87 (58.8)	
Grade	4-yr	68 (45.9)		Over college	57 (38.5)	
	5-yr	28 (18.9)	Religion	Buddhism	22 (14.9)	
	6-yr	51 (34.5)		Christian	51 (34.5)	
Academic achievement	Low	8 (5.4)		Catholic	16 (10.8)	
	Medium	99 (66.9)		Others	3 (2.0)	
	High	38 (25.7)		None	56 (37.8)	
Religion	Buddhism	20 (13.5)	Perceived economic status	Very low	-	
	Christian	62 (41.9)		Low	8 (5.4)	
	Catholic	18 (12.2)		Average	127 (85.8)	
	Others	3 (2.0)		High	11 (7.4)	
	None	42 (28.4)		Very high	2 (1.4)	
Perceived economic status	Very low	-	Caregiver after school	Yes	108 (73.0)	
	Low	3 (2.0)		No	40 (27.0)	
	Average	82 (55.4)		Relationship with peers	Poor	7 (4.7)
	High	43 (29.1)			Good	91 (61.5)
	Very high	15 (10.1)			Very good	50 (33.8)
Caregiver after school	Yes	96 (64.9)	Best friend No.	None	3 (2.0)	
	No	48 (32.4)		1	2 (1.4)	
Relationship with peers	Poor	7 (4.7)		2-4	23 (15.5)	
	Good	78 (49.3)		Over 5	122 (82.4)	
	Very good	67 (45.3)		School satisfaction	Not at all	1 (0.7)
Best friend No.	None	1 (0.7)	Rarely		13 (8.8)	
	1	-	Moderately		74 (50.0)	
	2-4	23 (15.5)	Very good		59 (39.9)	
	Over 5	122 (82.4)	Sibling No.		One	14 (9.5)
	School satisfaction	Not at all		1 (0.7)	Two	94 (63.5)
Rarely		13 (8.8)		Three	28 (18.9)	
Moderately		74 (50.0)		Four	2 (1.4)	
Very good		59 (39.9)		Birth order of sibling	First	69 (46.6)
Overall PedQL		Low	16 (10.8)		Second	53 (35.8)
	Medium	99 (66.9)	Third		15 (10.1)	
	High	33 (22.3)				

관계에 대해 '좋은 편이다' 61.5% (91명), '아주 좋은 편이다' 33.8% (50명)로 아동보다는 낮게 보고하였다. 부모님의 경우 아이의 친한 친구 수는 '2-4명'이 39.2% (58명), '5명 이상' 57.4% (85명)으로, 학교 생활은 대부분 즐거워한다(95.2%, 141명)고 하였다. 전반적인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해 부모님은 '보통이다' 66.9% (99명), '매우 좋다' 22.3% (33명)로 대부분의 부모가 보통 이상으로 보고하였다.

아동의 삶의 질 및 아동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양상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Table 2-1과 같다. 전체적인 삶의 질 수준은 아동 2,025.68 (±265.60)과 부모 2,016.05 (±245.35)

로 모두 중상위로 보고하였으며, 아동이 인지하는 삶의 질 정도가 부모가 인지하는 삶의 질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아동과 부모가 인지하는 아동의 삶의 질 정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t=0.376, p=.708$). 아동이 인지하는 삶의 질 정도에 따라 부모가 인지하는 아동의 삶의 질 정도는 어떠한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아동이 인지한 삶의 질 정도를 점수분포비율에 따라 세 등분하여 상, 중, 하의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부모가 인지하는 아동의 삶의 질과 비교하였다. 삶의 질 정도가 '상'인 그룹에서는 아동이 부모가 인지하는 아동의 삶의 질 보다 유의하게 높게($t=4.687, p<.001$) 나타난 것에 비해 삶의 질이 '하'인 그룹에서는 아동이 인지하는 것보다 부모가 인지하는 아동의 삶의 질이 높았으며 그 차이는 유의하였다($t=-4.392, p<.001$).

Table 2-1. Level and Difference of Quality of Life between Children and their Parents (N=148)

PedsQL	Subscales	Perceived by children		Perceived by parents		t	p
		Mean (SD)	Range	Mean (SD)	Range		
Total	Physical	700.17 (102.12)	350-800	694.59 (111.48)	275-800	0.512	.609
	Emotional	429.39 (86.78)	150-500	426.52 (70.66)	225-500	0.336	.738
	Social	451.69 (68.24)	225-500	457.26 (61.25)	200-500	-0.854	.395
	School	444.43 (57.94)	200-500	437.67 (61.34)	200-500	1.140	.256
	Total	2,025.68 (265.60)	1,125-2,300	2,016.05 (245.35)	1,225-2,300	0.376	.708
High (n=52)	Physical	781.73 (21.65)	725-800	728.37 (88.70)	475-800	4.372	<.001
	Emotional	490.87 (34.88)	450-500	442.79 (66.48)	225-500	5.193	<.001
	Social	493.27 (83.84)	425-500	471.63 (59.83)	200-500	2.523	.015
	School	485.58 (20.62)	425-500	456.73 (62.65)	200-500	3.078	.003
	Total	2,251.44 (35.84)	2,200-2,300	2,099.52 (229.16)	1,225-2,300	4.687	<.001
Medium (n=51)	Physical	708.82 (56.31)	525-800	692.65 (123.52)	275-800	0.911	.367
	Emotional	453.43 (42.43)	350-500	422.55 (79.73)	225-500	2.430	.019
	Social	471.08 (37.21)	325-500	459.80 (49.01)	375-500	1.411	.165
	School	449.51 (35.17)	375-500	441.18 (49.71)	350-500	0.933	.355
	Total	2,082.84 (66.99)	1,975-2,175	2,016.18 (243.81)	1,525-2,300	1.951	.057
Low (n=45)	Physical	596.11 (108.05)	350-750	657.78 (111.02)	300-800	-2.679	.010
	Emotional	331.11 (412.22)	150-475	412.22 (61.61)	275-500	-5.162	<.001
	Social	381.67 (78.95)	225-500	437.78 (70.84)	250-500	-3.941	<.001
	School	391.11 (66.18)	200-500	411.67 (63.87)	250-500	-1.763	.085
	Total	1,700.00 (237.89)	1,125-1,950	1,919.44 (234.33)	1,400-2,275	-4.392	<.001

Table 2-2. Level of Parental Bonding Attitude and Parent Child Communication Score (N=148)

Variables	Subscales	Mother-Child		Father-Child		t	p
		Mean (SD)	Range	Mean (SD)	Range		
PBI	Care	36.68 (5.34)	18-46	34.71 (5.11)	18-42	-4.030	<.001
	Overprotect*	38.62 (5.64)	26-52	33.53 (3.69)	23-42	-11.089	<.001
	Total	75.29 (9.59)	50-95	68.24 (5.97)	48-82	-9.99	<.001
PCC	Open	30.14 (6.30)	12-40	27.99 (6.52)	10-40	-4.028	<.001
	Close*	32.26 (5.90)	10-40	31.86 (5.77)	15-40	-0.729	.467
	Total	62.39 (10.47)	32-80	59.85 (10.87)	27-80	-2.909	.004

*inverse operation.

PBI=Parental Bonding Attitude; PCC=Parent-Child Communication.

아동이 인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양상을 비교한 결과(Table 2-2), 어머니 양육태도는 75.29 (± 9.59)로 아버지의 양육태도 68.24 (± 5.97)보다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9.99, p<.001$). 또한 아동이 인지하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62.39 (± 10.47)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59.85 (± 10.87)보다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909, p=.004$).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삶의 질 수준

아동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비교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성적이 좋다고 응답한 아동($F=13.830, p<.001$)과 형제들 중 첫째인 경우($F=3.558, p=.031$), 방과 후 집에 어른이 계시는 경우($t=3.233, p=.002$), 또래집단과 관계가 좋은 아동

들($F=23.236, p<.001$)의 삶의 질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리고 학교생활이 즐겁다고 응답한 그룹($F=19.019, p<.001$)에서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들은 유의하였다. 그 외의 변수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동이 인지한 부모 양육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 아동의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

아동이 인지한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그리고 삶의 질과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아동의 삶의 질과 부모의 양육태도($r=.418, p<.001$),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r=.453, p<.001$)은 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r=.375, p<.001$)와 아버지($r=.342, p<.001$)의 양육태도 모두가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도

Table 3. Quality of Life to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48)

Characteristics		PedsQL (Children)			
		n	Mean (SD)	t or F	p
Living area	Gyeonggi-do	99	2,039.90 (245.75)	0.926	.356
	Seoul	49	1,996.94 (302.45)		
Gender	Male	66	2,005.30 (285.26)	-0.836	.404
	Female	82	2,042.07 (249.22)		
Grade	4-yr	68	1,987.13 (299.58)	1.389	.253
	5-yr	28	2,054.46 (259.10)		
	6-yr	51	2,063.24 (216.24)		
Academic achievement	Low ^a	8	1,527.25 (403.50)	13.830	<.001
	Medium ^b	99	2,041.92 (238.59)		
	High ^c	38	2,066.45 (223.40)		
Religion	Buddhism	20	2,153.75 (137.72)	1.993	.099
	Christian	62	2,003.63 (259.88)		
	Catholic	18	1,970.83 (277.63)		
	Others	3	1,808.33 (280.02)		
	None	42	2,029.17 (280.02)		
Perceived economic status	Low	3	1,891.67 (357.36)	0.968	.382
	Average	82	2,006.71 (287.66)		
	High	58	2,056.90 (234.93)		
Sibling No.	One	14	1,987.50 (.72.20)	0.496	.610
	Two	94	2,026.86 (253.95)		
	Over three	30	2,068.33 (242.47)		
Birth order of sibling	First ^a	69	2,092.03 (251.99)	3.558	.031
	Second ^b	53	1,972.64 (267.25)		
	Third ^c	15	1,976.67 (270.82)		
Caregiver after school	Yes	96	2,075.52 (235.44)	3.233	.002
	No	48	1,927.08 (302.90)		
Relationship with peers	Poor ^a	7	1,517.86 (339.64)	23.236	<.001
	Good ^b	73	1,987.67 (259.78)		
	Very good ^c	67	2,121.64 (185.91)		
Best friend No.	0-4	24	1,923.96 (335.93)	3.404	.067
	Over 5	122	2,052.05 (240.08)		
School satisfaction	Rarely ^a	14	1,744.64 (343.09)	19.019	<.001
	Moderately ^b	74	1,981.08 (270.33)		
	Very ^c	59	2,150.00 (151.43)		

*Scheffe Post hoc test.

Table 4. Correlation among Parent Bonding Attitude, Parent-Child Communication, Quality of Life

(N=148)

Variables	Father PBI	Mother PBI	Father PCC	Mother PCC	Total PBI	Total PCC	PedsQL
Father PBI	1.000						
Mother PBI	.470*	1.000					
Father PCC	.593*	.432*	1.000				
Mother PCC	.426*	.732*	.505*	1.000			
Total PBI	.778*	.920*	.571*	.710*	1.000		
Total PCC	.589*	.668*	.873*	.862*	.737*	1.000	
PedsQL	.342*	.375*	.355*	.432*	.418*	.453*	1.000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2-tailed).

PBI=Parental Bonding Attitude; PCC=Parent-Child Communication.

Table 5. Predictors of Quality of Life (Enter)

(N=132)

Variables	B	S. E	Beta	t (p)	R ²	F (p)	Collinearity statistics	
							Tolerance	VIF
Academic achievement	328.14	82.658	.294	3.970 (.000)			.767	1.304
Caregiver after school	118.76	38.073	.210	3.119 (.002)			.926	1.080
PCC	5.95	2.800	.207	2.126 (.035)	.477	16.184	.446	2.242
Relationship with peers	251.62	99.896	.197	2.519 (.013)		(<.001)	.689	1.451
School satisfaction	167.80	64.789	.188	2.590 (.011)			.801	1.249
Birth order of sibling	-60.70	25.695	-.155	-2.362 (.020)			.973	1.028
PBI	0.44	3.967	.011	0.111 (.912)			.425	2.354

Dependent Variable: PedsQL.

VIF=Variation Inflation Factor.

어머니($r=.432, p<.001$), 아버지($r=.355, p<.001$) 모두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아동의 삶의 질 관련 요인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그리고 일반적 특성에서 아동의 성적, 방과 후 어른 유무, 또래집단 관계, 형제 중 순서, 학교생활 정도를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5). 상관관계가 유의한 일반적 특성 변수들은 분산분석의 사후분석을 참고로 가변수(dummy) 처리하였으며,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tolerance) .446에서 .973이고, 분산팽창계수(Variation Information Factor) 1.028에서 2.242으로 나타나 다중 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분석결과 위의 변수들을 포함한 모델은 아동의 삶의 질에 대해 47.7% ($F=16.184, p<.001$)의 설명력을 보이고, 아동의 삶의 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 성적($t=3.970, p<.001$)이었으며, 그 외 방과 후 어른 유무($t=3.119, p=.002$), 부모와의 의사소통($t=2.126, p=.035$), 또래집단 관계($t=2.519, p=.013$), 학교생활 만족($t=2.590, p=.011$) 및 형제 중 순서($t=-2.362, p=.020$)가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로 확인되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보고한 아동의 삶의 질과 부모들이 지각하는 자녀들의 삶의 질을 비교하고 아동이 지각하는 삶의 질과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아동과 부모가 보고한 아동의 삶의 질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그룹이 보고한 삶의 질 수준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oore의 연구(Lee, 2007에 인용됨)에 의하면 청소년이 아닌 학령기 후기 아동인 대상자는 아직 부모와 자주 의사소통을 하고 의존하기에 부모가 인지한 아동의 삶의 질은 아동의 그것을 잘 반영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삶의 질을 상, 중, 하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삶의 질이 '상'인 그룹의 아동의 부모가 인지한 아동의 삶의 질은 아동보다 낮게 나타났고, 삶의 질이 '하'인 그룹의 아동의 부모가 인지한 아동의 삶의 질은 아동이 생각하는 것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삶의 질을 부모가 이해한다고 생각하고 부모를 통해 아동의 삶의 질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전통적으로 아동의 자가보고에 대하여 신뢰나 수용을 꺼려왔으나 최근 연구에서는 아동으로부터 직접 얻어지는 자료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고, 아동은 그들 자신이 최상의 정보자원이며 그들에게 보여지는 실제세계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아동에게 접할 필요가 있음(Docherty & Sandelowski, 1999)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보여진다. 아울러 삶의 질이 낮게 나타난 아동의 부모가 아동의 삶의 질을 높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그 차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살피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아버지의 양육태도보다 긍정적이었으며, 아동의 삶의 질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선행연구들에서도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질적으로 다르며(Lee, 2007), 부모와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에는 차이가 있고 부모가 지각한 양육태도 보다는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를 측정하는 것이 자녀의 내적 발달을 설명하는데 더 관련성이 많고 바람직하다(Han, Yi, Sim, & Choi, 2005; Rohner & Pettengill, 1985)고 하였다. 아동의 성장발달의 핵심요소로 제시되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 관련 변인과 가족의 삶의 질과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Oh, 2008)에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동개선에 영향을 주게 되며,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자녀의 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Woo, 2003)고 한다. 또한 학령기 후기 아동은 또래관계가 중요시 되면서 부모에 대한 애착행동과 상호작용은 줄어들게 되지만 여전히 부모와의 관계의 중요성은 강조되며(Dwyer, 2005) 아동의 삶의 질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 아동의 삶의 질이 부모의 의사소통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보이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Moon, 2009; Oh, Park, & Choi, 2008; Park & Ha, 2007)에서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와 의 기능적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문제행동 발생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의사소통이 빈번하고 더 개방적이며, 청소년 자녀에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자녀의 사회적, 정서적, 사회적 영역 등과 연결되어 자녀의 삶의 질을 결정짓게 한다고 보여지며, 아동과 부모의 의사소통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학령기 후기 아동의 삶의 질과 또래집단과의 관계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 영역과 속성들에 관한 연구결과(Han, Yi, Sim, & Choi, 2005)에서도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아동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었다. 또한 학령기 아동은 때로는 부모나 교사보다 또래의 의견을 더 중요시하며, 이 시기에 또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집단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아동은 소외감을 갖게 된다(Moon, 2009). 따라서 친구관계의 유지 및 증진은 학령기 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다.

아동의 학교생활 만족도 및 학교성적은 아동의 삶의 질에 주요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Han 등(2005)의 연구에서도 학령기 아동이 가장 바라는 것으로 공부 잘하기, 열심히 공부하기, 공부 부담감 감소와 같은 속성들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에 있어 학습영역은 아동의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학교성적이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방과 후 집에 어른이 있다고 보고한 아동의 삶의 질이 유의하게 높은 본 연구의 결과는 학령기 아동에게 가족영역이 타 영역에 비해 가장 중요하고, 가족과 연결된 행복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Han 등(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형제 순위가 첫째인 경우가 둘째 혹은 셋째인 경우보다 높은 삶의 질 정도를 나타냈다. 자녀의 출생순서에 따른 어머니의 기대수준 연구(Yoon, 1988)에 의하면, 첫째들은 어머니와의 잦은 의사소통을 통해 언어적 자극을 많이 받게 되며, 부모는 다른 자녀에 비해 첫째에게 더 큰 기대를 갖는다고 하였다. 독자녀의 경우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많고 행동성숙이 빠르기 때문에 좋은 동료관계를 갖게 하며, 학업성취, 운동성취 및 사회성성취를 하게 된다고 한다(Yoon, 1988). 결과적으로 아동이 갖게 되는 삶의 질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정도 및 양육태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삶의 질을 설명하는 통합모델(Brief, Butcher, & George, 1993)에 의하면, 행복한 사람은 인생의 즐거움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지만 반드시 그들이 객관적인 의미에서 행복할 수 있는 요소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니다. 인구사회학적 측면의 삶의 객관적인 상황은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보다는 삶의 상황에 대한 인지적 해석이라는 매개과정을 거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매개과정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삶의 객관적 상황은 삶의 일부분 밖에는 설명할 수 없게 된다. 아동은 미성숙한 인지구조 상태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의사소통에 의해 형성되는 신념이나 태도가 부정적이면 삶의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아동에서 간과되고 있는 삶의 질을 측정하고, 아동의 삶의 질과 관련 요인으로 학령기 후기 아동에게 있어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에 대해 아동을 통해 직접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서울 및 경기도 지역 4개의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과 부

모 148쌍을 대상으로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아동의 삶의 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아동과 부모 모두 아동의 삶의 질을 높게 보고하였고, 부모의 양육태도($r=.418, p<.001$)와 부모와 의사소통($r=.453, p<.001$)은 삶의 질과 유의한 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또래집단과의 관계, 부모와의 의사소통, 학교 성적, 방과 후 집에 어른이 계시는지의 여부, 학교생활 만족 정도 및 출생순위는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전체 모델의 47.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16.184, p<.001$).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은 발달단계에 따라 삶에 대한 인지가 다르므로 다양한 발달단계의 아동을 대상으로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을 바람직하게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이고 체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 Barnes, L., & Olson, D. (1985).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the circumplex model. *Child Development, 56*, 438-447.
- Brief, A. P., Butcher, A. H., & George, J. M. (1993). Integrating bottom-up & top-down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The case of health.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64*, 646-653.
- Bullinger, M., Schmidt, S., & Petersen, C. (2002). Assessing quality of life of children with chronic health condition and disabilities: A european approach. *Internationa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5*, 197-206.
- Chang, E. Y., & Oh, J. A. (2008). A concept analysis of the quality of life for the children. *Journal of Korean Parent-Child Health, 11*, 127-137.
- Choi, E. S. (2004). *Psychometric test of the PedsQL 4.0 generic core scale in Korea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Cohen, J.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Docherty, S., & Sandelowski, M. (1999). Focus on qualitative methods: Interviewing children. *Research in Nursing & Health, 22*, 177-185.
- Dwyer, K. M. (2005). The meaning and measurement of attachment in middle and late childhood. *Human Development, 48*, 155-182.
- Han, K. J., Yi, Y. H., Sim, I. O., & Choi, Y. J. (2005). Dimensions and attributes of quality of life in Korean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11*, 167-178.
- Han, S. C., Choi, A. M., & Park, S. H. (2004). *Adolescent psychology*. Seoul: YangSueWon Publishing Co.
- Kang, K. A., Kim, S. J., Song, M. K., Sim, S. Y., & Kim, S. H. (2007).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to measure meaning of life (MOL) for higher grade prim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13*, 308-317.
- Kim, H. S., & Shin, Y. H. (2004). The parent's perception on quality of life of their epileptic children. *Keimyung Journal of Nursing Science, 8*, 77-86.
- Kim, Y. H. (1989).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couple relationship,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family functio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 Kwon, M. K. (2009). Comparison of child-rearing attitudes of parents and problem behavior of children as perceived by parents and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15*, 164-170.
- Lee, I. Y., & Im, S. Y. (1998). The children with severe disability and their quality of life. *Korean Journal of Nursing Query, 7*(2), 8-18.
- Lee, K. N., Kim, K. H., Rhu, G. H., Moon, S. H., & Hong, B. S. (2000). The quality of life;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 of the Korean Child Welfare, 9*, 9-49.
- Lee, M. J. (2007). *Relationship between parent child communication patterns & parenting attitude and depression & delinquent behaviors among adolescents in military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Moon, S. H. (2009). Relationship of peer relationships,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s, self-reported attachment security, to loneliness in upper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Korean Academy Nursing, 39*, 401-408.
- Oh, W. O. (2008). Factors influencing family quality of life among mothers of children with ADHD.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14*, 396-404.
- Padilla, G. V., & Grant, M. M. (1985). Quality of life as a cancer nursing outcome variable. *Advanced Nursing Science, 8*, 45-60.
- Park, H. S., & Ha, J. H. (2007). The effect of the parents-adolescents communication level and adolescent's emotional autonomy on anger expression method and juvenile delinquency. *Studies on Korean Youth, 18*, 89-110.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 1-10.
- PedsQL data. (1998-2010). *The PedsQL scoring algorithm*. Retrieved March, 2009, from <http://www.pedsq.org/score.html>
- Ravens-Sieberer, U., & Bullinger, M. (1998). Assessing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chronically ill children with the German KINDL: First psychometric and content analytical results. *Quality of Life Research, 7*, 399-407.
- Rohner, R. P., & Pettengill, S. M. (1985). Perceived parental accep-

- tance-rejection and parental control among Korean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56, 524-528.
- Shin, Y. H., Sim, M. K., & Kim, T. I. (2006). Resilience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children with chronic ill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ing*, 12, 295-303.
- Song, J. Y. (1992). The development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Korean version: Evaluation of the test reliability and validity.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31, 979-992.
- Varni, J. W., Seid, M., & Kurtin, P. S. (2001). PedsQL™ 4.0: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pediatric quality of life inventory™ version 4.0 generic core scales in healthy and patient populations. *Journal of Medical Care*, 39, 800-812.
- Woo, M. S. (2003).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on children's development of self-concep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Gangneung.
- Yoon, Y. A. (1988). *Developmental expectation level according to birth order of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